



금호타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하이트진로

지역경제계 '연말 사랑나눔' 풍성

김장김치 · 연탄 기부...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지역 경제계가 새해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김장김치와 연탄을 기부해 소외계층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김장김치 나눔사랑 실천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손봉영 생산기술본부장과 최준의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 등 임직원 50여 명이 김장김치 1,400여 포기를 담았다.

이 김치는 300박스로 포장돼 21일 광산구청과 곡성군 임면사무소를 비롯해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등에 전달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가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

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죄지원센터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21일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은 지난 20일 2016년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 부행장은 "이번 후원이 범죄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탄 나눔 행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김정민, 이하 농관원)과 대한민국 스

타림 광주·전남 협의회(회장 조영식)는 지난 20일 전남 순천 일대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 7곳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스타림 광주·전남협의회는 지난달 제1회 광주·전남 스타림 박람회 개최 후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연탄 2,100장과 농관원 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보급한 성금 등으로 쌀, 화장지, 라면 등의 생필품을 구입해 스타림 협의회와 농관원 직원 40여명이 직접 배부했다.

김정민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 일수록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사랑기금 전달식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10차 조성금에 대한 기탁식을 21일 광주문화방송 사장실에서 최영준 문화방송 사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광주사랑기금은 하이트진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을 위해 펼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중의 하나다.

지난 2010년부터 정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광주에서 판매되는 하이트진로 제품이 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 2012년 11월 2억원의 조성금을 완료했다. 이날 3,670만원을 포함 누적기탁금은 2억3,652여만원에 달한다.

성동욱 하이트진로 상무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이트진로 봉사단 활동을 포함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더욱 넓여갈 것이다"며 "지원된 금액이 지역 결실이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하게 쓰여져서 훈훈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김영란법 시행...소비침체 · 경기 위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갤럭시노트 7 리콜 · 단종

되돌아 본 2016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은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을 바꿨다. 금액 제한은 소비심리 침체와 경기를 위축시켰다. 나주 남평 출신 김병원 전 농협 양곡 대표의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8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갤럭시노트 7은 잇달은 발화 사고로 출시 2개월만에 단종됐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부문에 대 큰 영향을 끼쳤다. 식사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이 지역민들의 소비심리와 사적 모임을 위축시켜 음식점, 화훼, 농축산 등 소비 침체를 불러왔다.

소비심리 위축은 11월부터 수면위로 떠올랐다. 법 시행 이후 10월까지의 정부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펼치며 정책적으로 내수경기를 방어했지만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3만원 식사값 제한으로 한우, 한정식 등 음식점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입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고용절벽이 가시화됐다. 법 시행 이후 타격을 입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개정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첫 농민대통령 당선

농협중앙회 회장에 김병원 전 농협 양곡 대표(82)가 선출됐다. 나주 남평 출신인 김 회장은 첫 호남 출신 선출

직 농협중앙회장이다. 1978년 농협에 입사한 그는 나주 남평농협에서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 3선을 지냈다. NH무역과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업무경합을 불리일으키는 경제지주 폐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상회금융 수익률 5% 이상 ▲지역농협 이익 환원 ▲시·군지부의 중앙회 직원 전환 ▲조합당 평균 100억원 무이자 지원 ▲2020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 60개소 지분인수 ▲상회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협은 4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이지만 농협중앙회 인사와 정책 실행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자리다. 대외업무 집행권,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의장, 직원인면권 등은 물론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지휘한다.

◇갤럭시노트7 리콜 · 단종

삼성전자가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잇달은 발화 사고로 '단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10월 단종 이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은 총 430만대. 국내에서만 약 50만대 판매됐다.

삼성전자는 1차 리콜 실시 이후에도 발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430만대 전량 회수에 나섰다. 이로 인한 손실은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화 원인을 파악,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갤럭시S8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한은 광주전남본부, 설 특별자금 150억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1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15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300억원) 규모의 특별연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금융기관이 신규취급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연 0.75%)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이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주점업,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캠퍼링 및 메팅업,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보건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다.

한은 관계자는 "설을 맞아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시범 운영

광주 중소기업업을 지키는 중소기업업체들의 공동 도매센터가 개장했다.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국환)은 21일 광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확장 이전이 완료돼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비 23억8,000만원, 국비 34억1,600만원, 민자 21억6,600만

원 등 총 80억여원을 들여 공동 도매 물류센터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건립했다. 총 면적은 1만4,000여㎡로, 창고동인 가동과 사무동, 냉장 · 냉동 창고가 있는 나동 등 총 2동으로 세워졌다. 나동에는 사무실과 교육장, 상담실도 마련했다.

/황애란 기자



2017년 도자기 전시달력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한국도자기 매장에서는 2017년 정유년 닭띠를 맞아 닭 그림과 새해 달력이 새겨진 도자기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진흥원, 우수 뮤지션 선발 오디션 결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장렬)은 23일 강진아트홀에서 지역 우수뮤지션 선발 오디션 최종 결선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에는 광주·전남지역을 비

롯 서울 · 경기, 제주도 등 전국에서 49개팀이 지원했다. 지난 9일 목포와 19일 순천 예선전을 통해 최종 20개의 결선 진출팀을 선발했다.

결선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보컬리스

트 박선주, 티엔씨매니지먼트 전무영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수뮤지션을 선발한다. 우수 뮤지션으로 선발된 5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음반제작 지원, 쇼케이스, 음악프로그램 및 공연 행사 등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황애란 기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품질 · 경영 · 시스템인증

ISO 인증 9001
KSA 인증 9001 · 2001인증

방수! 직접 시공하세요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적벽돌, 흙집, 드라이비트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무독성제품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미화표'를 꼭 확인 하세요!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 367-7755

시외지역택배우송함
광주시 서구 농성동 660-29